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사변적 미래로 풀어내다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어제 결과물 발표 ‘언론공개회’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 주제
美·日 등 8개국·8팀·12명 참여
참가비 무료...현장 선착순 모집

지구라는 하나의 유기체가 인간이 일군 기술과 융합돼 사변적 미래를 펼쳐 놓은 대안 현실 공간이 마련됐다.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 창·제작스튜디오에서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개막을 하루 앞두고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언론공개회가 개최됐다.

9회째를 맞은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의 올해 주제는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로 과학기술과 예술, 자연 간의 관계성에 주목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지난 4개월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브라질 등 총 8개국 8팀 12명이 작업한 결과물이 22~27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 상희와 내러티브 디자이너 성훈이 협업한 팀 ‘교각들’은 ‘미소녀는 수육을 먹지 않는다’를 선보였다. VR 챗 커뮤니티 문화에 미소녀 도상의 역사성과 모델링을 통한 재현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구현했다.

일본의 예술 기획자이자 사회적 조각가인 류타 아오키는 ‘시물레이션된 합’이라는 작품으로 AI와의 협업을 통해 여론 조작의 잠재적 위험을 조명한다. 우리가 의존하는 집단 의사결정 기술에 많은 결함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파고들어 ‘인류가 앞으로 여론을 온전히 표현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대만의 차이오치 추와 요우양 후가 지난 2018년 설립한 ‘신피지카’는 ‘인공지능-크리치-멀티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가상의 생물 종이 다중우주 안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조성할지 탐구했다. 레지던시 기간 다중 감각 식물로 구성된 혼성 정원에서 3D 스캐닝 및 모델링 기술을 활용한 체험을 선사한다. 이 작업으로 가상 생명체들은 실제 생물의 감각을 얻게 된다. 가상 생명체가 현실 세계의 식물과 상호작용한 환경을 관객들은 몰입해 체험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멀티미디어 조각 및 퍼포먼스 작가 사이언 동주는 설치작 ‘잊혀질 권리’로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기억과 친밀감의 변화하는 특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모든 식사 장면을 재생해서 볼 수 있고 사소한 행동이나 몸짓을 분석해 향후 대화를 최적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된다.

이 같은 기술적 정보 보존은 기억을 경험하는 인간의 유기적 방식과 상반되지만 관리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또 망각이라는 인간적 ‘결함’을 극복하고 기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기계에 미루면 벌어질 미래를 상상케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객들은 관람 후 모든 것을 기억할 권리가 있는 고안된 세계 속에서 인간의 망각 능력이 컴퓨터의 저장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기능임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홍콩의 가치 찬과 팻 윈산 윌이 설립한 작가 집단 ‘스페이스 앤드’는 ‘안녕, 월드



이강현 ACC 전당장이 21일 ACC 문화창조원 창·제작스튜디오에서 열린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언론 공개회에서 쇼케이스 작품 ‘신피지카’를 체험하고 있다.

를 발표했다. 이 작업은 챗GPT의 공동창립자 새뮤얼 올트먼이 공동설립한 아트테크계 공동 ‘월드 아이디(World ID)’에서 영감을 얻어 생물학적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두 개체만을 인정하는 미래를 그린다.

디지털 개체를 통해 소비주의와 상업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1980년대는 서구의 좀비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묘사로 소비자본주의를 낳은 기술 발전 과정에 만연한 소비주의를 은유적으로 투영했다.

미국의 레이 엘시 작가는 ‘미래를 위한, 미래의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조우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현재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의 해석을 바꾸고 진실을 은밀히 수정한다.

스페인과 브라질 국적의 루이자 크로스만과 에두아르도 카스티요가 올해 설립한 ‘스카이스코어스’는 인공지능 가상예측 기술 멀티미디어 설치작 ‘기후 프리미엄’을 선보였다. 지구의 대기상태와 날씨파생상품 가격에 기초한 전 세계적인 투기 금융 활동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상상의 외계 생물군계를 오디오 비주얼로 연출한 메조코즘의 ‘테라플렉타’, 프랑소와 조빈과 마르쿠스 헤크만의 퍼포먼스 작품 ‘업힘’, 하카손의 쇼케이스 작품 ‘크립 바디’ 등이 이날 함께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작품들을 모두 관람한 이

강현 ACC 전당장은 “‘신피지카’를 체험할 때 인간의 입장이 아닌 식물의 입장에서 자연을 바라보게 됐다. ‘나무가 돼 느끼는 대기의 질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며 “ACC는 앞으로도 융복합 창·제작 플랫폼으로서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오픈스튜디오의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장에서 선착순 모집하며, 워크숍 참가자만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 비보이 팀 ‘애시드브레이커즈’ 공연

내달 14일 전일빌딩245

광주를 소재로 한 비보이 팀 ‘애시드브레이커즈’가 내달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 동구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에서 ‘빛나는 광주! 브레이크 힙합콘서트!’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광주시 문화예술민간단체 공연예술 진흥사업으로 지원받아 제작된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초연, 지난해 재연돼 사전 예약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비

보이, 스트리트댄서 등 청년예술인들로 구성된 다이나믹한 비보이 공연, 스트리트 댄스공연, 퓨전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비보이 팀 애시드 브레이커즈는 2003년 광주의 비보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돼 활동 21주년을 맞은 베테랑 브레이크 크루다. 그동안 비보이 공연, 힙합예술교육, 힙합컨텐츠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스트리트댄스 크루로는 최초로 광주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았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무료이며 애시드브레이커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광주비엔날레 폐막 D-10... 관람객 위한 이벤트 ‘다채’

아트숍 및 광장서 다양한 행사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폐막을 앞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21일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폐막 전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남은 전시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판소리, 모두의 울림’ 주제에 착안해 광주비엔날레 직원들과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한 판’ 이벤트를 준비했다. 광주비엔날레 야외 광장에서 당일 입장



광주비엔날레 아트숍 전경. 광주비엔날레 제공

권 소지자에 한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니 게임 3종에서 선택한 1종의 게임을 직원과 진행해 이기면 광주비엔날레 기념품이 증정된다. 해당 이벤트는 22일과 29일

오후 진행된다.

전시를 기념할 수 있는 상품부터 체험 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이고 있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트숍 G#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천연 린넨을 활용한 내년도 패브릭 달력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실크스크린 워크숍으로 기획됐다.

22~23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비엔날레 아트숍에서 당일 입장권 구매자에 한해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현장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참여는 문자로 신청하면 된다.

박찬 기자

ACC 어린이문화원 내달 16일까지 임시 휴관

콘텐츠·관람환경 개편
내달 17일 재개관 예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 및 관람환경 개편을 위해 내달 16일까지 임시 휴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휴관기간 ACC 어린이문화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를 구축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어린이도서관은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와글와글 어린이도서관’으로 바뀌며 어린이체험관은 ‘지식과 문명’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메타버스 ‘아시아로 떠나는 문화 여행’, 아시아 그림책 체험전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등의 콘텐츠를 새롭게 준비한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공간 개

선과 휴게·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직원 대상 관람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고객 응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ACC 어린이문화원은 내달 17일 재개관할 예정이며, 어린이 창작실습실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한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첨단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융복합 문화공간을 통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글로벌 문화예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 개발과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